

성공적인 성교육 지도를 위한 아홉가지 수칙

「일그러진 성문화, 새로보는 성」

성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처 할 수 있는 기초는 우선 성에 대해 축스럽거나 나쁘다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감추는 성에서 건강하게 즐기는 성을 이야기하자.

성은 인간이 누려야 할 특권 중의 하나지, 동물적이고 하찮은 것이 아니다.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생기는 욕구가 아니라, 태어나면서 성은 생애 전체를 통해 나타난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욕구지만 어느 정도의 규칙과 약속 아래 충족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성을 드러내지 않고 누리는가 하는 은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쪽으로 생각할 때다.

자유로운 부모 - 자녀간의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평소의 부모-자녀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자녀는 자신의 고민을 쉽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고, 부모는 감정이나 도덕적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편안하게 들어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정확한 성 지식을 갖고 있어야 잘 지도할 수 있다.

아이의 질문에 질책하거나 무시하거나 할 경우, 아이들은 죄의식과 함께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이는 자신감을 잃게 하여 인격형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변화를 인정해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도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희망사항일 뿐이다. 따라서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에 따라 내 자녀도 성욕을 느끼며, 이성을 그리워하는 성적인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 성적 존재로 자녀를 이해하는 것은 성교육의 필수요건이다.

성에 관한 설명은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효과적이다.

때때로 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있다. 즉, 정자와 난자가 성교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과정을 통해 만나게 됨을 설명하는 것은 더 이상의 호기심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성교를 빼고 추상적으로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서 만난다는 추상적인 설명은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한 호기심의 꼬리를 계속 잇게 만든다.

남녀 평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날로 비인간화되어가고 이런 흐름 속에서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남성우월주의와 여성비하의식을 가장 쉽게 갖게 하는 영역이 바로 성교육 부분이다. 즉 생식기와 생리적인 차이가 심리적인 차이를 가져오고, 더불어 남녀가 하는 일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단순한 도식을 만들기 쉽기 때문이다.

성교육은 남녀가 한자리에서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남녀를 구분하여 따로따로 교육시키기 보다 통합해서 교육시켜야 한다. 흔히 아들은 아버지가, 딸은 어머니가 따로 교육시키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분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딸에게도 남성의 특성에 관해 가르치고 아들에겐 여성에 대한 특성을 가르쳐 자녀들이 자기의 성 특성 이외에 이성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책임의식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책임감이란 결과를 예상하여 신중한 판단에 의해 행동하고, 행동의 결과는 자신이 감당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자신의 행동은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해 자기책임하에 결정내린 결과여야 한다. PPFK